

5월의 사양관리 포인트



김 성 호

<진흥사료 영업부장>

1. 기 상

구 분	일 조 시 간		평균기온	장우일수
	5월 1일	5월 31일		
서 울	13시간45분	14시간34분	16.3°C	9일
대 전	13 " 40 "	14 " 29 "	16.7 "	9 "
대 구	13 " 38 "	14 " 25 "	17.6 "	9 "
광 주	13 " 35 "	14 " 20 "	16.8 "	10 "
부 산	13 " 36 "	14 " 21 "	16.7 "	9 "
제 주	13 " 31 "	14 " 13 "	16.2 "	10 "

상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5월중 각 지방의 일조시간은 평균 약 2분씩 길어지고 평균기온은 4월과 마찬가지로 최적온도를 유지하며 상대습도도 역시 닭의 생리에 알맞는 자연환경이다. 그러나 4월과 마찬가지로 환절기에 유행하는 호흡기성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달이므로 환기 및 온도 관리에 유의하고 아직까지 방한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계사는 서서히 제거하여 의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겠다.

2. 육계의 관리 포인트

육계업계의 일시적인 경기호전으로 인하여 병아리 값이 폭등하면서 돈을 주고도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되자 한동안 병아리 구입 정탈 전에 손오병법(?)까지 동원된 치열한 격전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 수당 180원 전후의 대금을 주고 구입하는 업자는 돼지꿈을 꾸어 세계 재수 좋은 축에 들어가고, 신용있는 업자라야 겨우 200원선에서 그것도 필요량의 절

반밖에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어수룩한 곳(?)에서는 230원에 구입하는 이변을 낳기도 했으나 그것 또한 양반중의 양반인 셈이다. 필자가 목격한 바로는 정가(협정요금)보다 몇 십원 더 없어주고 손발이 닳도록 빌면서 구입한 도 부화장의 세칭 "전용부로이러로" 라는 품종이 족보도 알 수 없는 썬미부로가 20~50%정도 섞여 있으니 2,3년전에 걸어치운 부화업자가 이것을 보았다면 가슴을 치고 자신의 경박함을 통탄했을 것이다. 이런 부정, 불량, 부화업자는 축산법에 위배되더라도 차라리 "썬미부로"의 간판을 걸고 정당하게(?)부화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진 철거를 하는 것이 부화업계를 위해서도 한결 나으리라 생각된다.

(1) 빠다리 사육

① 1실의 마리수를 조생추는 12수, 중추10수, 출하추는 7수 이내로 제한할 것.

② 체중별로 약한 병아리는 상단에, 강한 병아리는 하단에 수용할 것.

③ 사료나 물이 부족되지 않도록 자주줄 것

④ 이동시에 병아리를 마구 취급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 우려가 있으니 애정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취급할 것.

⑤ 입추후 2주일간은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소독수를 뿌려주면 방역상 효과가 크며, 습도도 조절되고, 병아리가 바닥에 떨어질 때 타격도 적어 스트레스가 반감되는 삼중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꼭 권하고 싶다.

(2) 평사 샷갓 육추

① 육계의 경우 첫모이는 빨리 급여하는 것

이(발생후 24시간전후) 좋다. 도착전에 따뜻한 물을 준비하였다가 도착하면 1시간정도 안정 시킨 후 물을 주고 사료를 급여할 것

(참고사항)

1. 입추후 약 3일간은 물에 설탕, 비타민 제, 항생제를 함께 타서 먹이면 건강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

2. 입추후 약 3일간의 사료는 가루모이를 그냥 주지 말고 갠모이를 줄 것.

② 개나 쥐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출입구나 환기창에 철망을 칠 것. (출입문은 반드시 2중문(내부는 철망문)으로 하여 문을 열어 놓더라도 외적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줄 것.

③ 비닐하우스식 제사인 경우 특히 주야의 온도차가 심하므로 이 격차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지붕부위는 반드시 스티로폼이나 가마니 등으로 직사광선을 가려주고 낮에는 온도가 다소 내려가더라도 환기가 잘 되도록 문을 열어 줄 것. 단, 바람이 심할 경우에는 맞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④ 사료의 입자가 너무 클 경우(특히 옥수수) 편식을 하게되고 이는 강약층의 발생요인이 될 수 있으니 전기사료나 후기사료의 입자가 비교적 고른 사료를 급여토록 할 것

⑤ 대장균증, 살모넬라증 및 곰팡이성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수의사나 사료회사의 기술지도 요원과 상의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 (1온스의 예방은 1파운드의 치료보다 낫다)

3. 산란계의 관리 포인트

수년동안 사료회사의 영업 및 생산업무에 종사해온 필자에게 근간에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종종 컷전을 때리곤 한다. 어분가격이 마구 뛰여 오르자 어분만으로는 장사가 어려운지 피혁부스러기, 우모분 등의 이물질이 어분과 섞여서 단백질만 높은 불량 어분이 나올 가능성이 짙다는데(확인사항은 아님) 이런 경우 현 사료회사에서의 판별이 불가능하므로 사육업자가 이로인한 선의의 피해를 보게된다. 산란율이 갑자기 10%이상 저하하든가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 거래중인 사료회사의 품질 관리자에게 바로 연락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분업자가 가족회사와 거래하거나, 우모분 등을 싣고 어분회사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일단 자기가 거래하는 사료회사에 즉시 연락해 주는 것도 간접적인 불량어분 퇴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1) 초생추

5월에 입추한 병아리는 중추시에 흑서기를 넘김으로 사육경험이 부족한 업자일 경우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입추계획을 세워야 한다. 병아리가 도착하면 다음 요령에 의해서 우량추와 불량추를 판별하고 불량추는 조기 도태를 해야된다(우량추의 조건).

① 품중에 따라 유의차는 있으나 체중이 35g이상일 것

② 같은 부화기내에서라도 발생이 빠른 것일수록 대개 건강추다.

③ 부리, 다리, 깃털 등이 품종 고유의 색깔을 띠고 있는 것

④ 활기가 있고 보행이 확실한 것

⑤ 깃털이 건조되어 있고 광택이 날 것

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생기가 있는 것

⑦ 우는 소리가 힘차고 확실한 것

⑧ 살짝 잡았을 경우 몸이 충실하고 탄력성이 있는 것

⑨ 매끈이 잘 아물어 있고 배가 너무 부르지 않으며, 난각이나 분비물이 붙어있지 않은 것

⑩ 다리가 윤이 나고 짧은 것

⑪ 주익우(主翼羽)에 횡선이 가지 않은 것

⑫ 사료를 충분히 먹고 잠을 잘 자는 것

⑬ 변이 정상적인 것(처음부터 묽은 변을 누는 것은 약추임)

(2) 중추

① 초생추의 성장속도에 비해서 중추의 성장속도는 느린편이나 (1개월령추는 부화시 체중의 약 6배, 3개월령추는 2개월령추의 약 1.6배임) 몸이 충실해지고 골격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장래의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배합사료를 급여

해야 된다.

② 일광욕을 즐기고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만들어 주고 계사면적을 최대한 넓혀 줄 것

③ 단성복시름의 피해가 심하므로 이의 예방에 전력을 기울일 것

④ 원기가 없고 발육이 불량하며 우모가 저지분 하거나 각약증상이 있는 것, 또 부리가 기형인 것은 아깝게 생각치 말고 과감히 도태할 것(양계의 최선의 기술은 도태라는 것을 명심하자.)

(3) 대추

① 난소, 수란관이 급속히 발달하여 산란준비를 하는 시기이므로 건강하고 충실한 닭이 될 수 있도록 운동을 시킬 것

② 중추시기인 70일령전후로부터 대추기에는(특히 제한급사의 경우) 발육의 개체차가 심하게 되기 쉬우므로 절대로 밀사하지 말 것

(참고사항)

평사는 1평당 30수이내, 빠다리는 1실(90~60cm)에 7수이내로 사육하고 대추사의 면적이 이보다 좁을 때는 차라리 케이지로 편입시키는 것이 더 좋다.

③ 빠다리나 케이지 편입시에는 체중이 비슷한 것끼리 수용할 것

④ 케이지 편입시 이동에 의한 스트레스와 환경변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호흡기계통의 질병이 발병하기 쉬우므로 예방약과 비타민제를 충분히 투여할 것

(4) 산란계

① 일조시간이 길어졌다고 점등에 소홀하면 다산계가 환우하기 쉬우니 절대로 점등시간을 단축하지 말 것

② 환우계와 개체별 산란성적을 조사하여 과산계는 과감히 도태할 것

③ 호흡기성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예방약을 투여하고 환기를 잘 해줄 것

④ 외부기생충에 대한 구충을 시작할 것

⑤ 다산을 하게 되어 파란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비타민제와 무기질을 사료이외에 별도로 충분히 공급해 줄 것



◎호흡기병(CRDD)特效약
◎빠다리병(비나인드레키)特效약
이제부터는 필드코

청량리가축약품

◎지방주문환영

서울·동대문구전농 2동597의32

(한국육계회 연락처) TEL. 96-8780

